

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2기 - 역량강화프로그램 이후 결과물: 블로그 후기 형식 (현유정)
※개인 블로그에도 업로드한 글입니다. (blog.naver.com/brooke2)

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2기 역량강화프로그램을 마치며: “소외 없이 상통하는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다.

1/11부터 1/19동안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이 끝났다.

주말을 제외하고 정확히 7일 동안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대개 9시 반에 시작해 5시 반에서 6시 반 정도에 끝났고 굉장히 지치는 일정이면서도, 알차고 재밌었다.

프런티어 활동에 지원할 때까지만 해도, 역량강화프로그램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중심일거라고 생각해 강의에 대해서만 기대했었다. 그런데 그 강의들 뿐 아니라, 각 강의를 듣고 얻게 된 인사이트(insight)를 정리하는 시간, 팀을 꾸리기 위해 관심 분야에 대해 탐색하고 대화하는 시간, 팀이 꾸려진 이후 탐구 주제를 구체화하고 현장 답사 대상을 탐색하는 시간 등이 있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거치며 경험한 것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처음에 지원하면서 썼던 관심 분야와 실제로 선택하게 된 분야가 달라졌다. : 내가 선택하게 된 분야는 '정의로운 전환'
2. 국내외의 여러 전문가들에게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배울 것들이 많았다.
3.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구체화시키고 현장 답사의 윤곽을 잡는 과정이 꽤 어려워서, 자료 탐색, 멘토링(mentoring), 문제 정의 및 구체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했다.

먼저 첫 번째 경험을 살펴보자.

1. 처음에 지원하면서 썼던 관심 분야와 실제로 선택하게 된 분야가 달라졌다.: 내가 선택한 분야는 '정의로운 전환'

나는 분명 지원할 때에는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보조금 (정확히는 REC가중치부여제도) 제도가 왜 없어지는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했고, 또 풍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부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 문제들을 어떻게 조정해 갈등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했었다. 그런데 실제로 관심 주제를 펼쳐놓다 보니 궁금한 것들이 점점 늘어났고 결국에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팀에 들어가게 되었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쉽게 말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미국에서 먼저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 주로 탈석탄으로 인해 발생하는 석탄 화력발전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를 다룬다. (원자력 발전소 폐쇄 예정 지역이 있다면, 원자력 발전 노동자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누군가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사회가 분담할